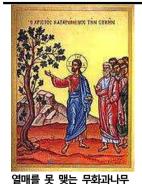
이 지훈 아네스





나누는 고도체 떠불어 사는 고도체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Fr. 김진열 가톨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 다니엘 12.1-3 [제1독서].....

[화답송]시편 16(15), 5와 8. 9-10. 11 (◎ 1 참조)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유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주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인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제 2 독서] 히브 10,11-14.18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마태 5.3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13, 24-32 [성가안내]

- 입당성가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232] 살아서 나를 믿는이

-	미 사 봉 헌					
	भगत	복制				
	이 경자 벨라뎃다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제임스 M 한트 김 영우 요셉, 강 견대 마리아 부부 서 정용 안드레아 김 양수 요셉 김조길 요아킴과 내손을 거쳐간 죽은자들 위해 유 혁일 안 경일 마틴, 조상님들을 위하여 윤 희중 영혼을 위하여 김 귀덕 강주옥 소피아, 원용한 요아킴, 김종목 리차드 조화장 안나, 강세랑 엘리사벳, 경견대 마리아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정 봉애 카타리나 율릿다 김 경련 김 지영 유스티나 서 경자 율리아 김 승한 어거스틴 김 화자 파비올라 유 희순 그레이스 안 영옥 분다 윤 루시아 박 민선 베로니카 은총의 모후 꾸리아				
	44p14	부원				
1	박 연옥 엘리사벳, 김 옥지 아가다 신 승원 바오로 김 주원 루시아 김 현용 니콜라오 이 지원 세라피나, 이 경호 율리안나 김 보현 엘리사벳 (영명 축하)	김 승한 어거스틴 박 카타리나 김 베네딕도 박 신희 리나 이 지원 헬레나 박 아영 올리바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1월14일	백이백	채봉석	최진영	최진영	이영혜	장동엽	김하나
	아오스딩	그레고리오	수산나	수산나	안젤라	에드문드	미리암
11월21일	박기웅	박기목	민덕미	민덕미	양미숙	박지현 헬레나	이상하 카타리나
	사도요한	알버트	안젤라	안젤라	마리아	조소연 마르티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이 병국

● 풍물패 '신명' 연습 있습니다.

오늘, 11월 14일 오후 2시 ~ 4시 교육관 3A

● 꾸르실료 교육 오늘 마칩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21. 11. 11(목) ~ 11. 14(일)

- 참가자 : 김 이 엘리사벳, 장혜윤 크리스티나

- 봉사자 : 김 미화 마리 클레어

● 11월 20일 (토) 전례봉사자 교육 및 모임 있습니다.

- 11월 20일 (토) 오후 5시 컨퍼런스 룸

- 대상 : - 전례 관계자 (미사 해설, 독서, 제의실, 성가대, 청년 전례부, 복사)

- 전례 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11월 21일 '공동체 설립 추진 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 주일 미사 후 2층 사무실 옆 모임방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모임 장소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2C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 stfrancisnyc.org→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위령성월 기도 -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十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WEST

백이백 변호사

(아오스딩)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 MON-SAT:11AM-11PM/ SUN: 12PM-9PM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13, 24-32)

마르코가 전해 주는 오늘 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무화과 나무의 교훈', '깨어 있어라'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 큰 환난 뒤에 빛이 사라지고 아둠이 덮이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히브리 성경에서 유래하고, '무화과나무'와 함께 메시아의 출현을 상징합니다. 종말사건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일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개운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 날과 시간을 재어보고 미리 예측하려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1 독서 다니엘 예언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설명하다.' 이야기입니다. 초기 부활신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묵시문학 작품들 중에서 매우 각별합니다.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종말, 심판과 재앙의 때, 현명한 이들과 의로운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뽑히지 못하고 영원한 치욕=죽음에 버려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2 독서 히브리서는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 입니다. 참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거룩하고 효력 있는 제사를 바치시고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영광을 찬미하면서, 저자는 종말론적 묵시문학의 소재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편집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승리자 심판자의이미지를 사용하여 종말 때의 심판을 묘사했지만, '예수님의 공로-죄의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집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질문하며, 보고 듣는 모든 것들과 씨름합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구세주 콤플렉스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늘 소외감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먹고 나서 성당에서라도 그런데 가끔 본인을 구세주로 연정을 받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인데, 본당 신부들 입장에 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열심히

이것은 어떤 증세인가?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거야' 혹은 '내가 없으면 우리 단체가 엉망이 될 거야',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망가질 거야등의 망상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구세주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병적인 자의식을 가질 때 이런 콤플렉스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벌입니다. 일을 벌여놓으면 추스를 사람이 필요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자신이 해놓고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고 불평불만을 늘어 놓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아 달라는 투정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합니다. 이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려고 하고 어떤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봉사 단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기질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키우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콤플렉스가 생긴 것일까요? 대개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늘 소외감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나서 성당에서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인데, 본당 신부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니 고마운데 다른 사람들을 근처에도 못 오게 하니난감한 일입니다. 대개 이런분들은 달리 할 일이 없어서본당에서 잔소리쟁이로 군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계록'입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고해소에 한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 제 미모 때문에 많은 사제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힐!' 그런데 고해신부가 듣다보니 그리 미모가 뛰어난 자매는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매님 괜찮습니다. 우선 자매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부는 한 사람도 없음을 아시기 바라고요 또 착각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에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착각이라니요! 어떤 신부님이 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떤 신부이신지?" "모모 신부님이요~" "아~ 그 신부님은 늘 모든 자매 님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신부님도 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샘내는 것이지요?" 고해신부가 대답이 없자 그 자매는 "대답해 보세요!"라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는 데도 대답이 없자 자매가 성질이나 고해소 문을 열었는데 그 고해 신부는 이미 도망을 가버린 후

였다고 합니다.